

행복한 금요 편지

진작 '나'를 알았더라면

이태호

H·N·S 공존연구소 대표¹⁾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 복제품(가짜)이라는 것을 안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언제나 그랬듯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진짜라고 믿고 온갖 치장을 하곤 했다. 때로는 색 바랜 흑백사진을 꺼내 보면서도 "그 때는 그래도 젊고 풋풋했었는데 지금은 물골이 왜 이럴까?" 라면서 한탄조에 가까운 독백을 한다.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진짜 '나'라는 존재를 잊고 산 것은 아닐까? 이렇게 후회하고 성찰하면서 되돌아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지나가 버렸다. 이러니 진짜가 없어진 세상에 복제된 가짜가 판을 칠 수 밖에 없다. 그래도 생각하지 못하는 돌의 천년보다는 생각하고 사는 '나'의 백년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지금이라도 거울에 비친 복제된 '나'를 보지 말고 거울 앞에 선 참 '나'를 보자. 나도 모르게 복제된 '나'를 보고 빠지고, 품 잡고, 우쭐됐으니 얼마나 많은 미움을 샀을까?

나의 어리석음을 아는 성찰과 자각이야말로 지혜의 시작이자 지혜에 이르는 오솔길이다. 그 지혜는 고요함(靜)에서 나온다. 자신의 삶이 창으로 찢리듯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어찌 마음이 고요하겠는가? 그래도 그 고통 속에서 고요한 자신, 그런 자신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때로는 스스로 아파하며 울고, 넘어지고, 헤매고 갈등하는 현실이 오히려 나를 위로하고 보듬어 주는 기회를 줄지도 모른다.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저벅저벅 걸어 들어가 당당하게 세상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의 여정이다. 그 여정에서 부딪치는 기쁨은 기쁨대로 오게 하고, 슬픔은 슬픔대로 가게 하는 넉넉한 정과 자비를 품었으면 좋겠다.

1) 행복편지를 기고해 주신 이태호 대표께서는 국회(7→4급), 불교방송(총무국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현재 H·N·S 공존연구소 대표, 수필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 1929~2007)가 《시뮬라크르와 시뮬라시옹》에서 주장한 "더 이상 모사할 실재가 없어지면서 실재보다 더 실재 같은 극실재(hyperreality)가 생산된다"는 '시뮬라시옹 이론'과 프랑스의 실존주의 사상가 사르트르(Sartre, Jean Paul, 1905~1980)가 철학논문 《존재와 무. 1943》에서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L'existence precede l'essence)"고 주장한 논제가 더욱 새롭게 느껴진다.

일상에서 늘 부딪치는 희·노·애·락 중에서 기를 쓰고 희호와 락樂만 반기고, 애써 노怒와 애哀를 피하려 든다면 진정한 행복이란 없다. 결코 쓴맛 없이 단맛은 없다. 온갖 탐욕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향락(?)의 생활과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고 몸을 괴롭히는 어리석음에서 빠져 나오는 것이 중도中道의 길이다. 파란만장한 속세에서 피해야 할 양 극단은 가난과 부富에 넘치는 향락이다. 재산은 너무 많아도 탈이지만 너무 가난해도 구차하게 살 수 밖에 없다. 그래도 '나'는 탁부濁富보다는 청빈淸貧에 더 매력을 느낀다.

진작 '나'를 알고 세상 이치를 깨달았다면 지금처럼 후회하고, 지금처럼 구차하게 살지 않았을 테지만 그래도 세상 이치를 조금은 깨달았으니 밥값의 반은 한 게 아닌가 싶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나'라는 인간 존재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름답고 행복한 공존의 삶'을 궁구하면서 은둔隱遁과 출세간을 오가면서 유유자적悠游自適하고 있다.

한선행복포럼에서는 '행복한 금요편지'이란 에세이를 통해 행복의 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당신의 소중한 편지를 기다리겠습니다. 행복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